

우리 식탁의 안전을 위하여!!

□글 | 이재성 □그림 | 황성호





“오늘 점심을 설렁탕 어때?”

갑자기 김과장의 설렁탕이라는 말에 사무실 안은 ‘짜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김과장은 주뻗주뻗 말을 돌렸다.

“모두들 설렁탕이 싫으면 다른 것을 하든가…….”

“과장님도 요즘에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개방 된다는 소리에 이제 소뼈로 우리는 국 물들은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소뼈를 우려서 먹는 국민들에게 광우병의 의심이 드는 소고기가 잔뜩 들어올다니, 어떻게 믿고 음식을 먹겠어요.”

“맞아요, 무조건 싸다고 사람들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음식재료로 쓸 것을 생각하니 아득해지네요.”

대여섯 명이 함께 쓰는 사무실은 모두들 점심을 먹으러 갈 생각은 잊은 채 수입산으로 채워지는 우리 식탁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 우유 한잔에 집에서 싸온 샌드위치 어때요?”

“역시 아줌마이신 우리 박대리님을 달라!”

사무실에서 유일한 아줌마이 박대리는 집에서 손수 썬 샌드위치와 싱싱한 과일, 그리고 우유를 하나씩 돌렸다.

“웬일로 샌드위치를 싸왔어요?”

“오늘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소풍을 가는데, 만드는 김에 좀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역시 박대리님이야.” 여직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 사무실도 힘들지만 도시락을 직접 싸 와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맞아요, 과장님, 도대체 믿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 정말 답답해요.”

“우리 매일 집에서 하나씩 싸와서 먹으면 돈도 절약되고 우리 건강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나온 김에 우리 내일부터 실천해요.” 성질 급한 박대리는 흥이 나서 말했다.

“좋아요, 내일부터 밥하고 반찬 하나씩 가져 와서 먹어요.”

“매일 마다 소풍 오는 것 같겠는데요.”

여직원들도 함께 흥이 나서 이야기했다.

박대리는 집에서 싸온 그릇들을 주섬주섬 챙기며, 말했다.

“우리는 우리 땅에서 나고 자라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경제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다른 나라 음식들로 식탁이 채워지는 현실이 너무 슬프네요.”

“조만간 우리 것들이 모두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예요.”

걱정하는 여직원들을 향해 김과장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 곁에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있잖아.” 김과장은 이렇게 말하며 다 먹은 우유잔을 높이 치켜들었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은 모두 한껏 웃었다.